

소나무의 식용 및 약용 이용법

○ 솔잎 및 어린 싹

- 기원 :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잎, 어린 싹 및 뿌리껍질 말린 것
- 생산
 - 잎은 신선한 잎을 따서 그대로 쓰는데 겨울철에 채취한 것이 좋다.
 - 어린 싹(신초지)은 봄철에 싹을 따서 말린다.
 - 마디(송절)는 어린가지의 마디를 잘라 말린다.
 - 뿌리껍질(송근백피)은 봄에 뿌리를 캐서 껍질을 벗겨 말린다.
- 성분
 - 신선한 잎에는 아스코르빈산, 카로틴, 비타민K, B, 안토시아닌 수지, 탄닌, 탄수화물이 주성분(정유 함량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 어린가지와 마디에는 카니플, 아비에틴산과 정유가 있다(정유에는 터펜성분이 있다)
 - 껍질에는 탄닌, 안토시아닌, 피마르산, 글루코틴이 있다.
- 약성 : 생송진과 터펜유는 살균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다.
- 맛음병 : 고혈압, 동맥경화, 중

풍, 부종, 불면증에 쓰인다.

- 배합

- 신장병, 빈혈은 잎을 달여서 차 대신 마시면 효과가 있다.
- 감기는 솔잎 끓인물을 절반정도로 진하게 달여지면 이것을 하루 1회 복용한다.
- 위장병은 잎을 물에 넣어 달인 것을 마시거나 생잎을 씹는다.
- 신경통, 루마티스는 솔잎을 찢어 하루에 3회 이것을 환부에 바른 다음 기름종이를 대고 따뜻하게 찜질을 한다.
- 고혈압, 동맥경화증은 껍질을 벗긴 솔잎을 반으로 자른 다음 병의 1/3까지 넣고 같은량의 벌꿀을 넣은 다음 병 가득히 물을 넣고 형겁으로 덮어 3개월후에 우려난 즙을 한 숟갈씩 하루 3회 복용한다.
- 백발은 잎을 잘게 썰어 간 것을 한줌정도 매일 물에타서 벌꿀을 넣어 마신다.
- 충치는 솔잎 5-6장을 아픈이로 꼭물고 있거나 송진을 충치에 바른다.
- 원기부족으로 기력이 없을 때는

가지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토막을 내어 병에 넣어 가지가 잠길정도로 물을 부운다음 뚜껑을 덮고 1개월정도 두면 소나무 가지에 송진이 우려 나온다. 이것을 걸러서 맑은 액을 따로 그릇에 받아두고 하루에 한잔정도 설탕을 약간 넣어 마신다.

- 뇌졸중은 술잎을 진하게 달여서 먹인다.

- 술잎음료, 캔디

- 제일제당의 술잎 추출물 음료인 “술의 눈”
- 동아제약의 술잎음료인 “스리뷰와 파인술”
- 해태제과의 술잎캔디는 “보디가드”
- 일본에서는 방향제의 입욕제도 시판

○ 꽃가루

- 기원 : 소나무과(Pinaceae)에 속하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기타 소나무속 식물의 꽃가루를 말린 것

- 생산 : 늦은봄(4월초, 중순) 꽃이 필 때 완전히 피지않은 꽃이삭을 따서 꽃가루를 모아 햇볕에 말린다.

- 동약형태

- 연한 누른색의 보드라운 가루이다. 손에 묻혀 비비면 매끈매끈한 느낌이 있다. 냄새는 약간 향기롭고 맛을 보면 기름기가 있다. 질은 가볍고 잘 난다.
- 색이 누렇고 보드라우며, 잡질이

없고 유동성이 큰 것이 좋다.

- 성분 : 기름 색소 등이 들어있다.
- 약성 :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간, 비경에 작용한다.

- 맞음병 : 비기허증, 어지럼증, 오렌 설사, 만성대장염, 위 아픔, 위 및 십이지장궤양, 습진, 창상 출혈에 쓴다.

- 배합

- 소나무 꽃가루에 다른 약을 섞어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약 한가지 만을 쓰는 경우도 많다.
- 비기허증, 위 및 십이지장궤양에는 소나무 꽃가루를 한 번에 3g 씩 하루3번 물에 타서 먹는다.
- 간난아이 습진에는 소나무 꽃가루 3g, 로감석가루 3g, 닭알 노른자위 3개에서 얻은 기름을 섞어서 1-3번 발라준다.

○ 솔 뿌리 흑(복령)

- 기원 : 구멍버섯과(Polyporaceae)에 속하는 복령균(Poria cocos)의 핵을 말린 것

- 생산

- 봄부터 가을사이에 솔 뿌리 흑 꼬쟁이로 썩은 소나무그루 주변을 찢러보아 솔 뿌리흑이 있는가를 알아낸 다음 균체를 캐내어 흑을 털고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햇볕에 말린다.

- 색이 흰 것을 흰솔 뿌리흑(백복령, Poria alba), 분홍색인 것을 붉은솔 뿌리흑(적복령, Poria rubra), 소나무 뿌리를 둘

- 러싸고 있는 것을 복신(*Poria cum radix jipini*)이라 한다.
- 솔 뿌리혹이 있는 곳은 흔히 땅이 터지고 두드려보면 속이 빈 소리가 나며 주변에 흰균체가 있거나 소나무 뿌리에서 흰누런 색의 유액이 흘러 나온다.
- 동약형태 :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덩어리이다. 흰솔 뿌리혹과 붉은 솔 뿌리혹은 모두 질이 굳고 잘 깨지며 무겁다. 깨진 면은 파립모양이다.
- 복신은 소나무 뿌리를 싸고 있다. 냄새는 없고 맛은 씹씹하다.
 - 흰솔 뿌리혹은 질이 굳고 무거우며 색이 흰 것이 좋은 것이다.
 - 솔 뿌리혹의 껍질을 말린 것(복령피)의 겉은 검은 밤색이고, 안쪽면은 흰색 또는 연한 밤색이다. 질은 연하고 탄성이 있다.
- 성분
- 다당류인 파키만이 93% 들어있다(파키만은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 물에 풀리지 않는 물질이다)
 - 파키민산, 에부리코산, 폴리포텐산 A 등이 들어있다.
- 약성
- 맛은 달고 씹씹하며, 성질은 평하고 폐, 비, 심, 신, 방광경에 작용한다.
 - 오줌을 잘 나가게하고 비를 건전하게 하며 담을 삭이고 정신을 진정시킨다.
- 흰솔 뿌리혹은 담을 삭이고 비를 보호하는 효능이, 붉은솔 뿌리혹은 습열을 없애며, 오줌을 잘 나가게 하는 효능이, 복신은 진정작용이 더 좋은 것으로 본다.
 - 솔 뿌리혹은 혈당량을 낮추고 진정작용도 나타내고 항암작용도 나타낸다. 위궤양을 예방하며 위산도를 낮춘다.
- 맛음병 : 비허로 오는 부기, 배물, 담음병, 게우기, 설사,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데, 잘 놀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건망증, 잠장애, 만성 소화기병에 쓰인다.
- 배합
- 부기는 흰솔뿌리혹 16g, 택사 12g, 이스라치씨 8g을 섞어 쓴다.
 - 임신부의 부기는 당귀, 궁궁이, 함박꽃, 찌지황, 흰삼주, 붉은솔 뿌리혹, 백사, 치자, 백문동, 후박 각각 6g씩, 생강 10g, 감초 6g을 섞어 복령탕으로 쓴다.
 - 설사는 흰솔 뿌리혹, 흰삼주 각각 12g씩 복령탕으로 쓴다.
 - 풍담으로 토하는데는 흰솔 뿌리혹, 후박, 흰삼주 각각 8g, 끼무뚝 16g
- 쓰는량 : 하루에 8-20g
- 참고 : 복신에 끼운 소나무 뿌리(신복)는 건망증, 힘줄이 켜기는데, 입과 눈이 삐뚤어지는데 쓰인다. 이상자료 : 산림청제공